

양측성 부신 선종으로 인한 쿠싱 증후군 1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내분비연구소
이항이* 우정택 전숙 고관표 오승준 김성운 김진우 김영철

배경: 부신 선종은 내인성 쿠싱 증후군의 10~30%를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일측성으로 발생하여 반대 측 부신 피질의 위축을 초래한다. 양측성 부신 선종에 의한 쿠싱 증후군은 문헌 보고가 매우 적고 국내에서는 94년 1예가 보고 되었을 뿐이다. 쿠싱 증후군의 비교적 드문 원인으로 알려진 거대 결절성 부신 피질 과증식에서도 부신선종과 유사한 내분비학적 검사소견을 볼 수 있으며 양측성으로 나타나므로, 진단적 측면에서도 양측성 부신 선종과의 감별을 위해 방사선학적 방법과 수술로 결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내분비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규명된 양측성 부신 선종에 의한 쿠싱 증후군 1예를 경험 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6세 여자 환자가 우연히 발견된 결핵성 흉수로 내원 하였다가 신체검사 상 월상안과 중심성 비만, 다모 증을 보여 쿠싱 증후군을 의심하였다. 환자는 5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고 특별한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환자의 24시간 소변 cortisol은 865.5 ug/day였고, 혈장 ACTH 값은 4.5 pg/ml였으며 저용량과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실험을 했으나 cortisol은 억제 되지 않았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좌측에 최장경 3cm, 우측에 최장경 2cm의 단일성 부신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그 외 부신조직에는 결절들이 보이지 않았다. 뇌하수체 자기공명 영상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측 부신 전절제술과 좌측 부신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육안적으로 결절성이 보이지 않고 단일 선종만 관찰되어 양측성 거대 결절성 과증식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조직 검사상 주변조직과 경계가 뚜렷한 섬유성 피막이 있었으며, 호산성 세포와 큰 지방공포를 함유하는 투명세포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세포가 일정한 배열 없이 불규칙하게 혼재되어 있어 양측 모두 부신 피질 선종에 합당한 소견이었다. 수술 후 환자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프레드니솔론 10mg 경구 복용하며 퇴원 하였고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A case of pseudocushing syndrome with unilateral nonfunctioning adrenal adenoma

Won Chul Chang, Byung Kook Kim, Mi Jin Kim, Kwang Ha You, Hae Jeong Je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Radiology*,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 pseudo-cushing's state can be defined as some or all of the clinical features of cushing's syndrome together with some evidence for hypercortisolism. It may relate to depression, alcohol abuse and obesity. Its manifestation may be transient and resolve with abstinence from causing factors. We report a case of a 70-year-old woman with unilateral nonfunctioning adrenal adenoma and geriatric depressive disorder, which diagnosed by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She showed clinical and/or biochemical features of cushing's syndrome. Low dose and high dose 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s were not identical to those in ACTH independent cushing's syndrome. Few cases of pseudo-cushing syndrome were reported previously in Korea but there was no report about pseudo-cushing syndrome combined with nonfunctional adrenal adenoma.